

농협목포유통센터 흑자경영 '눈앞'

경영 개선 한뼘... 개장 10년만에 적자구조 탈피

3월 학교급식센터 위탁 운영편 매출 신장 기대

농협 목포유통센터(사장 최종대)는 그동안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존폐위기에 처했다가 적극적인 경영 개선에 발벗고 나선 결과 개장 10년 만인 올해 흑자 경영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조만간 농협중앙회의 인사단행을 앞두고 있어 경영진 인사에 따라 큰 변수가 예상되고 있다.

목포 유통센터는 지난 2003년 개장 했지만 외곽에 위치해 고객 접근성이 떨어지고 지난해 유통 재정부의 여과까지 겹쳐 지역 소비심리가 위축되며

지난 연말까지 250억원의 적자가 누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의 신용·경제 분리 사업구조 개편과 맞물려 지난해 초 중앙본부로부터 만성적인 적자사업장인 목포유통센터 폐쇄 방침까지 통보를 받았다

이에 최종대 사장은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타파시킬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던 중 목포시가 무상급식 전면 확대 실시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 센터를 설립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

하고 본격적인 유치활동을 펼쳤다.

최 사장은 경기도 고양시와 김해, 원주시 등 성공적인 농협 위탁 사례 소개를 비롯해 ▲어린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에 따른 철저한 분석 ▲시설 세부적인 운영계획 방안 제안 등 발벗고 나섰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목포 학교급식 지원센터 관련 조례개정(안) 3건이 입법완료돼 이달 중 시의회 상정 및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오는 3월부터 학교급식 지원센터 업무가 시작되면 목포유통센터의 사업량은 올해보다 200억원 이상이 신장돼 만성적인 적자사업구조에서 탈피해 흑자경영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협 목포유통센터는 축산 농가를 돕고 지역 소비자들에게 우수한 품질의 저렴한 소고기를 공급하기 위해 산지 축산농가에서 직구매해 전국 최저가로 판매하는 등 다양한 행사로 지난해 대비 매출액 30억원과 매출 이익 5억원을 신장시키는 등 적자폭을 줄여 왔다.

최종대 사장은 "조례 개정이 시의 회에서 통과되면 식자재 매장내에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시설을 보완하고, 오는 3월부터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주 사업장인 식자재 합인매업량은 올해보다 200억원 이상이 신장돼 만성적인 적자사업구조에서 탈피해 흑자경영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기초단체장 새해 청사진

정기호 영광군수

“행복한 건강도시 만들기 주력”



맞춤형 농산물 생산 확대

우량기업 20개 유치 목표

대미산단 토지분양 마무리

정기호 영광군수는“올해는 민선 5기의 성공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의미가 큰 해”라며 “더 큰 성장과 발전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2012년 군정을 내실 있게 꾸려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를 ‘행복한 건강도시 건설의 해’로 정하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 ‘글로리(Glory) 영광, 대한민국 1등 군 영광’의 목표를 공고히 다져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 군정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정 군수는 우선 영광군을 친환경 미래산업의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실행투자 2000억원을 목표로 군 전략목표에 부합하는 우량기업 20개를 유치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전기 자동차와 해상풍력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고 대마 전기자동차 산업단지의 토지분양도 제때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어 정 군수는 “한·미 FTA 협정이 올해부터 발효되는 등 농·수 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매우 어렵다”며 “FTA 협정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맞춤형 기술지원으로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을 확대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며, 친환경 녹색 축산을 실천하는 등 농업과 축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역특성에 맞는 미꾸라지 토산 어종 양식을 지원하

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영광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전통시장 현대화, 면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정 군수는 “녹색생활을 실천해 건강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선 ‘4무(無)운동’을 범 군민 운동으로 전개해 불법 주차차, 불법 노점상, 불법 광고물, 불법 쓰레기가 없는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무질서하게 난립한 간판을 정비하고, 도심속 여유 공간과 도로변 가로수 등 녹지축(軸)을 연결해 도심속의 녹색공간 확충에도 힘을 쓴다.

아울러 영광군 기본 경관계획을 수립해 미래 건강도시의 발전방향을 제시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일과 복지를 연계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들과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의 자활과 자립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도 인재육성 기금을 300억원 조성하고, 초·중·고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등 청소년들의 교육환경 개선에도 힘쓴다.

정기호 군수는 “풀뿌리 지방자치 정착하는 과정에서 행정수요는 복잡 다양해지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대는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현장에서 군민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군민과의 소통·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서부취재본부=조익성기자 ischo@

새 얼굴

“농축산물 명품화 새 소득원 개발”

장석홍 함평부군수



“함평군의 미래가 걸려있는 많은 현안 사업들이 잘 추진돼 함평이 전남에서 가장 활기차고 역동적이며, 군민이 행복해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땀 흘려 일하겠습니다.”

지난 4일 취임한 장석홍(58) 함평 부군수는 “천혜의 여건을 잘 살려 친환경 농업을 실현하고 함평 농·수·축산물의 명품화로 새로운 소득원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소득과 연계되는 경제축제 만들기에 동참해 경제관광을 육

성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수 출신

인 장 부군수는 지난 1979년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후 전남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광양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정책부장, 전남도 행정과장 등을 역임했다.

가족으로는 부인 정민숙(51)씨와 사이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서부취재본부=형은화기자 hwang@

해남 화력발전소 건립 설명회 무산

반대측 주민 300명 점거 농성

해남 화원면에 추진중인 MPC 코리아홀딩스의 화력발전소 건립을 위한 설명회가 반대측 주민들의 설명회장 점거로 인해 무산됐다.

홀딩스는 지난 10일 화원면 대한조선 기술교육원에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화전 투자 유치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1시간 전부터 반대측 주민 300여명이 점거 농성을 벌여 행정과장 등을 억압했다.

홀딩스는 이날 설명회에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환경, 보상, 지원 문제를 밝힐 예정이었다.

회사 측은 석탄 분진 등으로 배추 농사를 못 짓게 되면 화원면 전체 농

가를 대상으로 보상하고, 지역 발전기금도 총공사비의 1.5%를 내겠다는 등의 주민들에 대한 직접지원책 등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홀딩스의 한 관계자는 “16일 주민공청회를 열고 주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 적극 설명하고 주민을 설득, 화력발전소를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화력발전소 건립 반대대책위원회”는 온배수 배출에 따른 연안 어장의 생태계 파괴와 지역농산물 브랜드까지 하락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한편 MPC코리아 홀딩스는 화원면 일대 250만㎡ 부지에 7조6000억원을 투자해 복합 화력발전소를 건립할 계획이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성기자 dia@

전북

도교육청 부패취약 분야 전면 수술

운동부 운영·현장학습 등 비리 차단... TF팀 구성

전북도교육청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전면적인 부패취약 분야 수술에 나선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해 청렴도에서 하위 평가를 받은 운동부 운영과 학교 현장학습, 급식 관리·운영, 공사 관리·감독, 예산집행 공정성 등의 분야에 대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한다”고 1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부패취약 분야별로 13일까지 각각 7~10명 규모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

태스크포스는 2월까지 실시 조사와 관계자 간담회, 설문조사를 통해 청렴도 취약 분야에 대한 원인 파악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또 이달 청렴도 우수교육청을 방문해 취약 분야별 주요 추진정책을 파악해 비리의 근원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교육청 관계자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확대하고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케 할 방침”이라며 “비위 공직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등 청렴도를 높여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 대한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 청렴도 7.39점을 기록해 2년 연속 14위에 머물렀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송아지 경매... 값 올랐네

나탈됐다.

소값 하락이 이어지는 가운데 11일 정읍시 정우면 우산리 정읍가축시장에서 송아지 경매가 열렸다. 송아지는 12월 말보다 30만~40만원 오른 값에

/연행뉴스

새만금 송전선로 행정소송 무기한 연기

사업 차질 불가피... 산단내 기업유치 적신호

올 연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한 새만금산단 송전선로 사업추진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11일 군산시에 따르면 송전선로 반대대책위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도시계획 시설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소송)의 1심 선고공판이 시내버스에 시범 운행이 시작되면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다음 심리 기일을 잡지 않았다. 재판부가 다음 심리기일을 확정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반대대책위가 군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

송의 1심 선고가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새만금 산단내 기업 유치와 군산지역 내 예비전력 확보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사업시행자인 한전은 일부 토지주와의 반대로 임피와 대야 등 일부 구간

에서만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공정은 40%에 머물고 있는 상태다.

한전 새만금 송전선로 사업은 새만금산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모두 19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군산전력소~새만금전선소 구간에 총 89개의 선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기업의 지원자격을 5인 이상 정규직 채용이 가능한 고용보험 가입업체로 13일까지 전북도 일자리종합센터(www.1577-0365.or.kr/young)에 신청해야 하며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면 1인당 월 80만원의 인건비가 지원된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bs8787@

원대병원~영등동~삼기~미륵산 150번 신설

익산 14일부터 버스노선 개편

익산시는 오는 14일 첫차부터 전체 106개 노선중 11개 노선에 대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교통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노선개편을 시행한다.

이번 개편에서는 원대병원에서 출발해 영등동~하나로~삼기를 거쳐 미륵산까지 운행하는 노선(150번)을 신설해 시민들의 편리한 여가선용도로 각광받고 있는 미륵산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유력한 미륵산을 더욱 편리하게 오갈 수 있도록 했다.

또 운행시간이 부족한 운행시간 준수가 어려웠던 4개 노선(61,

62, 60-3, 300)의 운행시간을 조정하고 출근시간대 시민들의 불편이 많았던 65번도 시민들의 교통수요가 많은 시간대로 변경했다.

시는 이번 시내버스 노선개편으로 인하여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익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된 시간표를 게시하는 동시에 시내버스 내부 및 승강장에 개편된 시간표를 안내하고 명함크기의 시간표를 나눠주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문의 익산시청 콜센터(1577-0072)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o0418

뉴스 브리핑

작년 해상범죄 493건...전년보다 소폭 증가

지난해 전북 관내의 해상범죄가 전년도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한 해 발생한 해상범죄는 493건으로 전년도의 464건보다 다소 늘었다”면서 “수사를 통해 16명을 구속하고 808명을 입건했다”고 11

일 밝혔다.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강·질도, 폭행, 사기 등과 같은 형사범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데 반해 수산업 특별법을 위반한 일반사범은 전년도보다 30%가량 늘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성기자 nogusu@

남원시 지방재정 운영 평가서 장관상 표창

남원시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행된 전국 242개 시군구의 2010년 회계년도에 대한 지방재정 운영 평가결과 우수단체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표창을 받게 되었다. 시는 재정 건전성 분야와 계획적인 예산운영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지난 2005년

부터 2011년 까지 7년연속 재정분석 우수단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시는 재정자립도 8.3%의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는 등 합리적인 운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bs8787@

김제시 노인운전 차량에 ‘실버 마크’ 부착

김제시는 늘어나는 고령운전자 보호를 위해 ‘실버 마크’를 노인운전 차량에 부착한다.

김제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4%에 달한다. 시는 관내 등록차량의 14%인 5천500여대를 운행하는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실버마

크를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실버마크는 밤에 빛이 잘 반사돼 야간운전에 도움된다고 덧붙였다.

실버마크는 차량 뒷유리에 붙여 노인운전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성기자 hnews@

순창농기센터 농업농촌 혁신대학 5기 입학식

순창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는 지난 10일 입학생 50명과 가족, 졸업생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농촌 혁신대학’ 제5기 입학식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오는 12월 18일까지 농한기를 활용한 30회의 강의

와 5회의 국내 선진농업 현장견학, 해외선진농업 벤치마킹 등 35회에 걸쳐 진행된다.특히 친환경농업, 농산물가공, 농산물마케팅, 농촌개발, 농촌체험관광, 리더십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